

국내 뉴스

1. 대한항공, 10월29일부터 홍콩-인천 하루 3편으로 증편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29일부터 홍콩-인천 노선 운항을 하루 3편으로 증편한다.

3일 대한항공 홍콩지점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홍콩에서 매일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편이 추가된다. 이에 맞춰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40분 출발하는 홍콩행 항공편이 편성된다.

이에 따라 홍콩-인천 노선은 주 14회에서 주 21회로 증편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홍콩에서 하루 5편(주 35회)의 인천행 여객기를 띄웠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이후 홍콩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2년 넘게 홍콩-인천 여객기를 일주일에 3회만 운항했다.

그러다 홍콩이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지난 7월 1일부터 하루 2편씩 운항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홍콩-인천 간 전체 항공편은 주간 153회 운항했으나 이달 현재 94회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주 14회), 캐세이퍼시픽(주 24회), 홍콩익스프레스(주 18회), 제주항공(주 7회), 티웨이항공(주 5회), 홍콩항공(주 4회), 그레이트베이항공(주 4회)이 운항 중이다.

한국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홍콩-인천 왕복 노선 평균 탑승률은 2018년 84%, 2019년 81%에 달했다.

올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는 6월 91%, 7월 89%를 기록했고 8월 잠정 탑승률은 90%다.

2. 이스타항공, 3년6개월만에 국제선 노선 비행 재개



이스타항공이 김포~타이베이 노선을 시작으로 3년 6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일 오전 184명의 승객을 태운 김포~타이베이 노선 ZE887편을 운항했다.

해당 노선 운항이 재개된 건 지난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마지막 운항한 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석 대표와 임직원들은 국제선 재개를 기념해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 게이트를 찾아 탑승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과 교통카드를 전달했다.

객실승무원들도 좌석 곳곳에 숨겨둔 보물을 찾는 이벤트를 진행해 승객들에게 이스타항공 굿즈와 대만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선물했다.

대만 쑹산 공항도 착륙 후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이스타항공 ZE887편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주며 운항 재개를 환영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일 김포~타이베이를 오고 간 두 편의 항공편 평균 탑승률이 9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0일 인천~도쿄·오사카·방콕·다낭 노선, 내달 29일 인천~후쿠오카·나트랑 노선에서 운항하는 등 본격적으로 노선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올해 1월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은 효력 정지됐던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지난 3월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조 대표는 "3년 6개월 만의 국제선 상업 운항 시작으로 항공사로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스타항공은 앞으로 차세대 기종 전환을 통한 기재 경쟁력과 적극적인 노선 확장으로 든든한 여행 파트너로서 행복을 주는 최고의 항공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3. “유커 본격 귀환 전인데도...” 에어부산 제주행 외국인 탑승객 중 중국인 1위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에어부산 국내선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탑승객 수치를 집계한 결과 중국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라 향후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유커’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New Take-Off 2023



AIR BUSAN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내 에어부산 부산·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전체 외국인 탑승객 중 중국인 비율은 약 2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이 약 17%로 다음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적자가, 비아시아권에서는 미국인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 국적자가 많았다.

아시아권과 비아시아권 국적 비율은 6:4 수준으로 근거리의 아시아권 관광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미국·유럽 등지의 관광객들도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었다.

해당 통계치는 제주행 국제선 직항편이 아닌 에어부산 국내선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한정된 수치이다. 다만, 최근 제주관광협회 통계 자료에서도 같은 기간(올해 1월~7월) 입도한 전체 외국인 방문객 303,364명 중 중국인이 129,881명(43%)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발표한 바 있어 유사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 및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중단되면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에어부산이 운항 중인 중국 노선들 외에도 향후 추가로 복항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국내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에어부산의 국제선과 국내선 노선을 연계한 이원화 일정의 제주 ‘유커’ 관광객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부산-제주 노선 매일 왕복 11.5 편, 김포-제주 노선 매일 왕복 7.2 편을 운항 중에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4. 추석 연휴 일본 노선 증편하는 에어서울



에어서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인천)~나리타 노선과 서울(인천)~나트랑 노선을 각각 매일 한 편씩 증편 운항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증편으로 나리타 노선은 하루 세 편씩, 나트랑 노선은 하루 두 편씩 운항하게 된다.

앞서 에어서울은 서울(인천)~다카마쓰 노선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일 한

편씩 증편했다. 일본 지방 소도시 노선이 매일 2회 왕복 운항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기 노선 증편으로 여행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5. 에어프레미아, 프랑크푸르트 취항 2달새 2만명 이용...탑승률 93%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23일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취항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2개월간 항공편 69편의 탑승객이 2만853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평균 탑승률은 93.3%다.

이 기간 같은 노선을 운항한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은 489편이며, 탑승객은 8만8천776명이었다. 에어프레미아의 운항편 점유율은 14.1%지만, 여객 점유율은 23.5%에 달한다.

에어프레미아는 9월 말~10월 초 황금연휴 기간 프랑크푸르트 노선 예약률이 90% 초반대인 만큼 탑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3일까지 프랑크푸르트 노선 항공권 운임을 20% 할인 판매하는 프

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대상 항공권은 오는 12월 29일까지 탑승 기준이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기범 에어프레미아 커머셜본부장은 "프랑크푸르트 노선의 높은 탑승률은 에어프레미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며 "차별화된 운임과 서비스를 통해 유럽 여행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정기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노선에 취항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해 태국 방콕, 일본 나리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5개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 부정기 노선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6. “3일 연차 쓰면 최대 12일 연휴”...항공편 예약률도 ‘굉충’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행 상품과 항공편에 대한 시민들의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 연차 3개를 쓰면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개천절, 한글날을 활용

해 총 12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률도 전년 동월 대비 높아졌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국적 항공사들의 주요 국내선·국제선 노선 예약률은 80~90%로 예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예약률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선 노선은 거의 만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도 정확한 예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남아와 일본 등 거의 모든 노선의 예약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국제선 예약률도 예년 명절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비행시간이 4시간을 넘는 동남아, 대양주 노선에서 높은 예약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발 세부·보홀 탑승률은 60%대였지만 최근 인천~필리핀 세부·보홀 노선과 인천~괌·사이판 노선의 예약률은 90% 중반이라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

추석 연휴 기간 티웨이항공의 10개 일본 노선 평균 예약률은 50~60%대인 국내선, 중국, 동남아를 뛰어넘는 7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에어서울의 일본 노선 예약률은 85~90%였으며 인천~다낭·나트랑 노선은 99%, 인천~보라카이 노선은 95%가량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추석 연휴 김포~제주 노선은 사실상 매진 상태이고 국내선 평균 예약률은 80%대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연휴 기간 운항 횟수를 늘려 증가하는 예약률에 대응하기로 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7. 울릉도공항 설계변경, 50인승→80인승 항공기 이착륙한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도공항이 설계 변경을 통해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설계는 50인승 항공기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활주로 시작과 끝부분의 종단 안전구역도 각각 90m 규모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울릉공항 취항 가능성이 있는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주력 제트여객기 E190-E2 등 80인승 기종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50인승 이하 기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확장을 요구해 설계 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제작사의 주력 소형항공기가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이다. 개항이 되면 그동안 배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울릉도를 비행기로 한시간만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번 설계 변경에 따라 현재 7092억원인 울릉공항 총사업비가 최소 수십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주로 옆의 폭만 넓히는 것이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재 바다 매립이 진행 중이며, 계획 변경은 본공사에 반영되므로 공사 기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해외 뉴스

8. 인도네시아, 가루다-씨티링크-펠리타에어 합병 제안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er for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은 정부가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3개의 항공사를 합병하는 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병이 진행될 경우,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Garuda Indonesia)는 자회사이자 저비용항공사인 시티링크(Citilink)와 국유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소유 항공사 펠리타에어(Pelita Air)와 합병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4개의 국영 항만운영사인 펠린도(Pelindo)를 합병하여 운영비용이 50% 감소하였던 전례로 이러한 합병 제안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루다인도네시아의 사장 이르판 세티아푸트라(Irfan Setiাপutra)는 “합병 제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 항공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시장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만약 합병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항공사는 5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며 기단은 750대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토리르 장관은 국영기업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펠린도는 4개의 회사에서 하나로 합병되면서 비용이 확연히 감소했다. 항공사들 또한 합병을 통해 같은 효과를 보고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루다인도네시아는 2022년에 약 90억달러(약 11조 8,980억원)의 부채를 포함해 항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해 약 7,650만달러(약 1,011억원)의 손실을 보고했다.

데와 카덱 라이(Dewa Kadek Rai) 시티링크 회장은 합병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9. 미국 43개 공항, 9월부터 유럽 직항 운항



2023년 9월부터 유럽 직항편을 운항하는 미국의 공항은 43개에 달할 전망이다.

9월 한 달 동안 예약된 미국발 유럽행 운항은 2019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항공데이터 분석업체 시리움(Cirium)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주간 최대 3,894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JFK 공항이 주 776편으로 가장 많고, 뉴어크공항이 414편, 시카고 오헤어공항이 340편, 워싱턴 덜레스공항이 296편, 보스턴공항이 273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10. 중국 국내선 여객기 이륙 후 새와 충돌로 엔진 손상...긴급 회항



중국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해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중국 매체 상여우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5분께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을 출발해 충칭으로 향하던 서부항공 PN6444 여객기가 이륙 직후 조류와 충돌했다.

이 여객기에는 16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기장은 "당시 고도 900m 정도로, 이륙한 지 약 1분 정도 지났을 때"라며 "새 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다"고 말했다.

여객기는 잠시 뒤 난닝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편이 이륙 직후 조류와 충돌해 엔진 손상이 발생했으며 안전하게 귀항해 승객의 안전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